

# C3002 3형 혼합형(VUL)

##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장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3형 혼합형(VUL)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 1. 펀드의 개요

###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3형 혼합형(VUL)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6862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4.12.14
운용기간	2018.04.01 ~ 2018.06.30	손속기간	최행으로 별도의 손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된 주식투자로부터 부분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며, 주로 국공채, 특수채,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우량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자본 이득과 이자 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li> <li>•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듀레이션, 수익률선, 신용, 고평가/저평가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li> </ul>		

###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3형 혼합형(VUL)	자산 총액 (A)	155	156	0.86
	부채 총액 (B)	0	0	-18.88
	순자산총액 (C=A-B)	154	156	0.90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103	104	1.56
	기준가격 (E=C/Dx1000)	1,506.25	1,496.56	-0.64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 운용경과

[주식부문] 지난 2분기 종합주가지수는 4.9% 하락한 2,326.1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미국채금리상승 및 이탈리아 지정학적 이슈, 6월 북미 정상회담, FOMC 점도표인상 및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대내외적 이벤트로 변동성이 심화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 건설, 섬유/복이 상승한 반면, 운수창고, 운수장비, 보험업종이 부진하였습니다. 수급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4조 2.7조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5.8조를 순매수하였습니다.

펀드는 2분기 동안 0.75% 하락하여 벤치마크 대비 0.15%P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업종과 의약품업종에 대한 시장비중 하회 전략이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하였고, 종목별로는 실적전망 상황에 따라 GS건설, 신세계, 한국가스공사 등이 긍정적으로 기여한 반면, 기계업종에 대한 오버웨이트 전략 및 음식료업종에 대한 언더웨이트 전략과, LG전자, 롯데케미칼, 삼성전자 등의 종목선정이 성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채권부문] 2분기 채권시장은 전약후강 흐름 속에 중기물 위주의 금리하락세로 마감하였습니다. 글로벌 무역갈등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국제유가가 큰 폭 상승한 가운데,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 한다”는 한은 총재의 발언 여파로 분기 중순까지 채권시장은 중장기물 위주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고용지표 부진과 5월 금통위의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 및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5월 중순 이후 금리상승폭이 빠르게 축소되었습니다. 이후로도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및 점도표 상황조정에도 불구하고, 1) ECB(유럽중앙은행)가 내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하고 2)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3)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해짐에 따라 분기말로 가면서 금리반락폭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2분기 채권시장은 전약후강의 장세 속에 중기물 위주로 강세마감하였습니다.

금리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분기 중 중립보다 소폭 낮은 듀레이션을 유지하였던 점은 성과에 부정적이었으나, 2~3년 구간의 상대적 강세로 인하여 2~3년 구간의 채권을 시장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던 만기전략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2분기동안 동 펀드는 시장과 유사한 성과를 시현했습니다.

###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주식부문] 3분기 국내 주식시장은 박스권내 반등시도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1) 이머징 증시의 동반 하락으로 이머징내 한국시장의 밸류에이션 상대매력도가 상당히 희석되고 있고 2) 미중분쟁과 같은 매크로 리스크와는 별개로,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유럽/중국위주로 둔화되는 국면이라 반등 탄력이 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적으로 방어주를 일부 편입하여 포트폴리오 베타를 낮추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운데 종목발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낙폭과대주에 대한 저가매수를 포함하여 주가 하락이후 업종간/종목간 상대매력도를 감안한 적극적 리밸런싱으로 수익률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월 들어 대북 긴장완화에 따른 한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 분위기를 예상하였으나, 대외적인 이슈가 불거지며 장 약세 전환되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아웃룩은 어긋난 상황입니다. 다만, 상향식(bottom up) 관점을 유지하여, 최근에 보유종목 중 아웃퍼폼했던 종목들을 차익실현하면서, 그간 하락폭이 컸던 텔레콤과 유틸리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면서 섹터를 분산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섹터에 대한 오버웨이트는 낮아진 상황입니다. 시장상승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용시 종목별로 차익실현 하고자 했던 종목들이 포트폴리오 내에 더 많이 눈에 띄면서, 편입비는 오히려 낮아진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베타 낮추어 리스크 관리하는 가운데, 지난 1-2년 동안 소외되면서 언더퍼포머이 컸던 대형주에 대한 bottom-fishing(주식의 최저가를 노려 매매하는 것), 상대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낮은 서비스 업종 및 내수, 테크 중소형주 등에서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채권부문]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조금씩 약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이 단기간 내에 쉽게 봉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점에서 대외여건은 채권수익률의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3분기 중 금통위에서의 인상 소수의견 출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구간의 금리하락폭이 추가로 크게 확대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3분기 채권시장은 금통위의 인상 소수의견 출회 여부에 주목하며 국고채 3년 1.98%~2.28%, 10년 2.40%~2.80%의 레인지 속에 높은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1차례가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국고 3년 금리 2.10~2.30%의 박스권 내에서 레인지 트레이딩을 지속할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7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 나오지 않는다면 국고3년 레인지를 1.95~2.20%로 하향조정해 연내 동결 가능성을 감안한 레인지 트레이딩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3/10년 스프레드가 40bp 하회시 장기물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

###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3형 혼합형(VUL)	-0.64	-0.29	0.39	0.64
(비교지수 대비 성과)	(-0.04)	(0.12)	(0.07)	(0.22)
비교지수(벤치마크)	-0.60	-0.41	0.32	0.42

※ 비교지수(벤치마크) : 한경-KIS 국고채 (4년~5년) 21%, 통안채종합 (3개월~1년) 7%, 특수채지수 (1~3년) 20%, 지방채 (4년~5년) 7%, 은행채 (1년~2년) 7%, 회사채 (1년~2년) 3%, 유동성 10% 그리고 KOSPI 2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3형 혼합형(VUL)	0.64	5.13	6.62	14.03
(비교지수 대비 성과)	(0.22)	(-0.88)	(-2.28)	(-4.11)
비교지수(벤치마크)	0.42	6.01	8.90	18.14

※ 비교지수(벤치마크) : 한경-KIS 국고채 (4년~5년) 21%, 통안채종합 (3개월~1년) 7%, 특수채지수 (1~3년) 20%, 지방채 (4년~5년) 7%, 은행채 (1년~2년) 7%, 회사채 (1년~2년) 3%, 유동성 10% 그리고 KOSPI 2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0	0	0	0	0	0	0	0	0	0	0	1
당기	-2	1	0	0	0	0	0	0	0	0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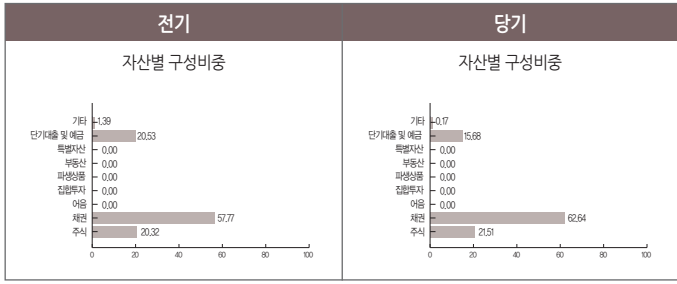
## 3. 자산현황

###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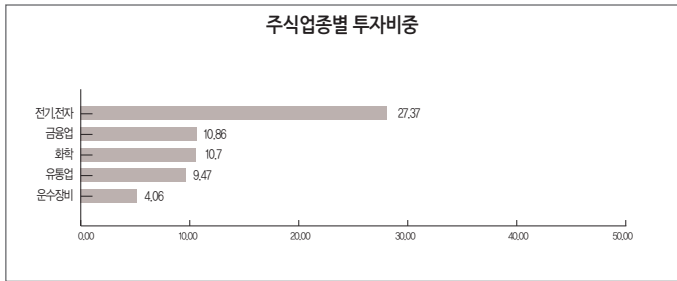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1.00)	34	98	0	0	0	0	0	0	0	24	0	156
	(21.51)	(62.6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5.68)	(0.17)	(100.00)
합계	34	98	0	0	0	0	0	0	0	24	0	156

※ ( ) : 구성비중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단위 : %)

순위	국가명	비중	순위	국가명	비중
1	전기,전자	27.37	6	의약품	3.53
2	금융업	10.86	7	건설업	3.51
3	화학	10.70	8	전기가스업	2.96
4	유통업	9.47	9	기계	2.80
5	운수장비	4.06	10	기타	24.74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순위	구분	종목명	비중	순위	종목명	비중	
1	단기	은대(우리은행)	15.68	6	채권	강원도개발공사151	6.47
2	채권	국고04250-2106(11-3)	13.60	7	채권	국고02375-2303(18-1)	4.52
3	채권	국고01875-2203(16-10)	12.71	8	주식	삼성전자	3.91
4	채권	국고01375-2109(16-4)	8.78	9	채권	통안0152-1808-01	3.21
5	채권	국고01250-1912(16-7)	6.98	10	채권	통안0125-1808-02	3.21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주식** (단위 : 주, 백만원, %)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삼성전자	131	6	3.9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 **채권** (단위 :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통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04250-2106(11-3)	20	21	대한민국	KRW	2011-06-10	2021-06-10		N/A	13.60
국고01875-2203(16-10)	20	20	대한민국	KRW	2017-03-10	2022-03-10		N/A	12.71
국고01375-2109(16-4)	14	14	대한민국	KRW	2016-09-10	2021-09-10		N/A	8.78
국고01250-1912(16-7)	11	11	대한민국	KRW	2016-12-10	2019-12-10		N/A	6.98
강원도개발공사151	10	10	대한민국	KRW	2018-05-14	2021-05-14		AA+	6.47
국고02375-2303(18-1)	7	7	대한민국	KRW	2018-03-10	2023-03-10		AA	4.52
통안0152-1808-01	5	5	대한민국	KRW	2017-08-09	2018-08-09		N/A	3.21
통안0125-1808-02	5	5	대한민국	KRW	2016-08-02	2018-08-02		N/A	3.21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계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0-04-01	24	1.15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계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이현구	부서장	51	76	2,265,935	-	-	2111000044
차인식	차장	50	76	2,265,935	-	-	2118000653
이하경	과장	34	76	2,265,935	-	-	211800065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1.01.15 ~ 현재	이현구
2018.05.29 ~ 현재	차인식
2018.05.29 ~ 현재	이하경
2018.01.15 ~ 2018.05.28	정우진
2009.02.04 ~ 2018.01.12	남정은
2012.11.05 ~ 2016.04.22	오인철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2	0	0.02	
판매회사	0	0.16	0	0.16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19	0	0.20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 · 중개수수료	0	0.02	0	0.02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2	0	0.02
증권거래세	0	0.04	0	0.03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총보수 · 비용비율(A)	매매 · 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7872	0.0827	0.8699
당기	0.7859	0.0946	0.8805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율**

(단위 :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 회전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501	21	459	17	51.05	204.74

\* 매매회전을율이란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금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매매회전을율이 높을수록 매매거래수수료(0.1% 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비용이 증가합니다.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을율 추이**

(단위 : %)

2017-10-01 ~ 2017-12-31	2018-01-01 ~ 2018-03-31	2018-04-01 ~ 2018-06-30
30.92	57.20	51.05

'3형 혼합형(VUL)'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기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